

자료 2024-11-8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쓰담달리기(Plogging) 봉사활동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대에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쓰담달리기(Plogg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쓰담달리기’는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Plogging)’을 대체하는 우리말이다.

이날은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가 소속된 30여명의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이 광주천변 시민 산책로를 달리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솔선수범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SG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 임직원 감사장 받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병일 은행장은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4x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화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ESG경영' 돌보이네...2년 연속 전분야 'A' 등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한국ESG기준원의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매년 ESG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상장사와 대기업 집단 계열사 1066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근로자 교육과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랑의 S-BOX', 장학재단 후원, 한국섬진흥원과 협업한 ESG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ESG의 추구하는 방향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며 "광주신세계가 ESG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대표작 전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부스를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본관 1층 광장에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대형 부스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가로 X 세로 각각 4m, 2.4m 크기의 대형 부스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 표지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부스 앞면에는 한강 작

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대표 작품 11권이 전시 중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중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수상하게 되어 이를 광주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자 부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 희망의 공부방 34호점 완공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4호점을 완공했다. 이번 34호점 완공식에서는 금호타이어 장진구 경영지원팀장 및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현판 전달로 진행됐다.

34번째를 맞은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

회공헌활동이다.

금호타이어는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3Q 영업이익 1402억원... 전년比 45.7%↑

KUMHO TIRE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 상승한 1조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7% 상승한 1402억원이며 영업이익율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8% 오른 12.6%를 기록했다. 이는 고수익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세를 지속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판매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수익성 개선을 확대하고 있다.

3분기 집계 결과 매출액 기준 72%를 달성했으며 누적 매출액은 3조2914억원이다. 또 고인치 제품 판매와 EV 타이어 OE 납품 비중은 각각 41.8%, 14%를 확보했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신규 신차용 타이어 차종 확대 및 교체용 타이어 수요 대응을 위해 글로벌 신규 공장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

보해양조

◆ 새 증류주 이름 '악마의 영혼'?...무슨 술이길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보해양조는 증류주 ‘악마의 영혼’ 출시 준비에 나섰다.

‘악마의 영혼’은 일반증류주로 보해양조의 대표 소주인 ‘잎새주’와 ‘보해소주’ 뒤를 이을 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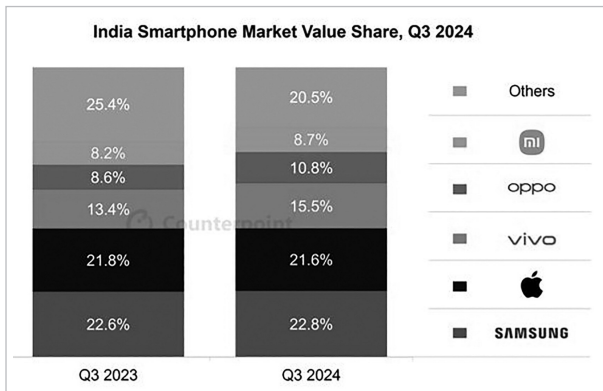
고(故) 임광행 보해양조 창립자의 손녀이자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의 1남2녀 중 장녀인 임 대표는 1985년생으로 주류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CEO이자 주류업계 최연소 CEO다.

주류업계에서는 새로운 이미지인만큼 임 대표는 보해양조가 최근 선보이는 주류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악마의 영혼이라는 증류주 이름을 만드는 데도 임 대표의 젊은 감각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 1위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2.8%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3분기에도 매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2.8%는 지난해 22.6% 대비 0.2% 상승한 수치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3% 가량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 판매 호조로 매출 점유율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저가 세그먼트에서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는 효과를 위해 갤럭시 A 시리즈에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3분기 인도 스마트폰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 과기부 '보스톤코리아' 연구지원사업에 선정



전남대학교 병원(병원장 정 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보스톤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는 연구 책임자로서 '심

장 섬유화 치료를 위한 섬유아세포 표현형 조절제 및 RNA 억제제 개발'을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박우진 교수), 미국 매스 제너럴 브리검 유전자 및 세포치료 연구소(Roger Hajjar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

정 신 병원장은 “보스톤 코리아 협력연구 뿐만 아니라 심장은행 유치를 통해 전남대병원, 전남대, 그리고 2029년 완공 예정인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기반으로 심혈관 질환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연구 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KDN

◆ ESG Week 개최...“ESG 경영 나비효과 확산”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나주 본사 일대와 온라인을 병행한 ‘제1회 한전KDN ESG Wee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한전KDN ESG Week’는 한전KDN이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 12개 전략과제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하던 개별 행사를 통합해 개최함으로써 임팩트 있는 ESG 의식 제고와 환경캠페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ESG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또한 임직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경험치 제고와 ESG 경영에 대한 긍정적 나비효과 확산으로 ESG 내제화에 근거한 모범적 ESG경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김장현 사장은 “이제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인 ESG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절대적”이라며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친환경·디지털 에너지ICT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임직원 미사용 물품 기부 캠페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기부하는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물품을 자원순환 단체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굿사이클링 캠페인’은 임직원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잡화·생활용품·가전·가구 등을 장애인 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부된 물품은 밀알복지재단 내 장애인 중심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점인 ‘굿윌스토어’를 통해 전국에서 재판매되어 구매자들과 만나게 된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와 장애인 고용 창출에 일조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국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 베트남 타이빈성과 사업 협력 강화 논의

호반그룹은 최근 베트남 타이빈성을 방문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과 대한전선의 베트남 법인 ‘대한VINA’ 생산 기지 확장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타이빈성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하노이와 하이퐁 등 주요 도시와 대규모



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시설과 국제공항·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연계된 것이 강점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대한전선 베트남 생산 법인이 북부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여러 한국 기업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타이빈성이 신흥 산업도시로 성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66회 금요조찬 포럼>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

(박주정 교육장)

1666회 금요조찬포럼은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교사 시절 위기 학생들의 동행과 교육장 재임까지의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다.

1992년에 광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업계라 하면 공부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 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교직생활은 학생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저를 지쳐가게 만들었고, 견디지 못해 약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저로서는 언제까지 설 수 없는 상황에 교육청 홈페이지 임용공고를 통해 재차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게되었고, 광주에 있는 350개 학교 중 발령대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한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던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도중 집으로 우리학교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무작정 집안으로 들어와버렸고 그렇게 동거 생활하며 이어가는 중 학교부적응 학생 8명을 시작으로 먹이고 재우고 성장시키고 내보내면,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 운명과 같은 동거로 707명의 아이들과 ‘생활지도 30년 외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금란교실’을 만들고, 현재 전국으로 확산한 Wee클래스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교사와 함께 ‘용연학교’를 설립하고 학교폭력이나 부적응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 교육청에서도 남들이 꺼리는 ‘생활지도업무’만 18년 담당하면서 138명의 자살한 아이들 주검을 보고 느끼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위탁기관을 만들었으며, 자살위기학생에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부르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결과를 명문대학교 합격률, 취업률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15-29세 청년 NEET족이 20.9%이고, OECD 주요국 중 3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에 관한 관심은커녕 아무런 꿈도 목표도 갖지 못하는 학생, 가정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턱없이 부족하여 미래 시대의 인재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만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맡은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광주경총 임원 및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지원, 격려를 당부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1. 경제 동향

◆ 기획재정부,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0.22)

-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24.7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으며, 2025년은 지난 전망치(3.3%)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2%로 전망
- IMF는 세계경제의 상방조정 가능요인으로 주요 선진국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전환국면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 하방조정 위험요인으로서는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제시.
- IMF는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화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 활용을 제안. 이 외 중장기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자유로운 무역 복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
- 한편,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4년 2.5%, 2025년 2.2%로 전망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0.23)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중 101.7로 전월(100.0)대비 1.7p 상승
 - * 소비자심리지수(CCSI):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 소비자심리지수(CCSI)추이 :100.9('4.6)→ 103.6(7)→ 100.8(8)→ 100.0(9)→ 101.7(10)
-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3)는 전월대비 2p 상승하고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147)는 전월대비 3p 상승, 임금수준전망CSI(119)는 전월대비 2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2.8%로 전월과 동일
 - ※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3.0('4.6)→ 2.9(7)→ 2.9(8)→ 2.8(9)→ 2.8(10)
 - ※ 3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동일,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대비

0.1%p하락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1.2%), 공공요금(50.5%), 석유류제품(28.3%) 등
-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인식'은 10월 3.3%로 전월대비 0.1%p 하락
 - ※ 물가인식 추이(%): 3.7('4.6)→ 3.6(7)→ 3.5(8)→ 3.4(9)→ 3.3(10)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0.24)

- 2024년 3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증가*(전년동기대비 1.5% 성장)
 - * 지난 8월 전망치('24.3분기 전기대비 0.5%증가)대비 0.4%p낮은 수준
 - ※ 실질 GDP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0.8('3.3q)→ 0.5(4q)→ 1.3('4.1q)→ 0.2(2q)→ 0.1(3q)
- (소비) 민간소비는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대비 0.5% 증가.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0.6% 증가
- (투자)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2.8%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대비 6.9% 증가
- (수출·수입)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대비 1.5% 증가
-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은 전기대비 0.2%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전기대비 0.2% 증가
 - ※ 2024년 2분기와 2024년 3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전기대비,%) [제조업] 0.8('4.2q)→ 0.2('4.3q)[서비스업]0.0('4.2q)→ 0.2('4.3q)
 - * 지난 '4.7월 전망치 대비 2024년,2025년 모두 동일

◆ 한국은행, 「2024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0.24)

- 2024년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로 전월대비 0.9p 상승하였으나, 2024년 11월 전망 CBSI는 89.8로 전월대비 2.8p 하락
 - * 전산업 CBSI추이 : 95.7('4.6)→ 95.1(7)→ 92.5(8)→ 91.2(9)→ 92.1(10)
- (제조업) 2024년 10월 CBSI는 92.6*으로 전월에 비해 1.7p 상승하였으나, 2024년 11월 전망 CBSI는 90.5로 전월에 비해 3.5p 하락
 - * 제조업 CBSI추이 : 97.4('4.6)→ 95.7(7)→ 92.8(8)→ 90.9(9)→ 92.6(10)

- **(비제조업)** 2024년 10월 CBSI는 91.7*로 전월에 비해 0.3p 상승하였으나, 2024년 11월 전망 CBSI는 89.2로 전월에 비해 2.3p 하락

* 비제조업 CBSI추이 : 94.3('4.6)→ 94.6(7)→ 92.2(8)→ 91.4(9)→ 91.7(1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2024년 10월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며, 2024년 11월 업황전망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p 하락

* 업황BSI추이 : 74('4.6)→ 72(7)→ 70(8)→ 70(9)→ 69(10)

- **(제조업)** 2024년 10월 업황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2024년 11월 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

* 제조업 업황BSI추이 : 78('4.6)→ 73('4.7)→ 71(8)→ 69(9)→ 69(10)

- **(비제조업)** 2024년 10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2024년 11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에 비해 2p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추이 : 71('4.6)→ 71(7)→ 70(8)→ 70(9)→ 70(10)

◆ 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발표 (10.24)

- 산업연구원은 10월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내용 요약 〉

-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가 결정된 후 美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한국은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할 필요.
- 무엇보다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과 미국시장 공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SRTA)을 도입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 가능
- **(우리의 대응방안)**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해올 수 있음.

-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
-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동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증가할 전망.
- 그 밖에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통계청,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0.31)

- (생산) 2024년 9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Delta 0.7\%$), 광공업($\Delta 0.2\%$)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0.8('4.5) → 0.1(6) → 0.6(7) → 1.3(8) → 0.3(9)
- 공업생산은 기계장비(6.4%)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1.3%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0.9%)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보건·사회복지(1.9%), 전문·과학·기술(1.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대비 0.8%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72.9('4.5) → 73.8(6) → 71.1(7) → 74.3(8) → 73.5(9)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9월 제조업 재고율은 106.8%로 전월대비 3.5%p 하락(전년동월대비 4.7%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110.6('4.5) → 104.7(6) → 115.0(7) → 110.3(8) → 106.8(9)
- (소매판매) 2024년 9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4년 3월(3.4%) 이후 7개월 연속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2.8('4.5) → 3.6(6) → 2.2(7) → 1.3(8) → 2.2(9)
- (설비투자) 2024년 9월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Delta 15.1\%$)에서 줄었으나,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8.4% 증가(전년동월대비 6.1% 증가)
- (건설투자) 2024년 9월 건설투자는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3.7%)

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전년동월대비 12.1% 감소)

* 건설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4년 5월(3.2%)이후 5개월 연속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3.2('4.5)→ 6.0(6)→ 4.9(7)→ 9.2(8)→ 12.1(9)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전월대비 0.1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전월대비 보합) 기록

◆ 고용노동부, 「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0.31)

〈 고용 부문(24.9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0.6%)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43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명(8.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8.1%) 감소

〈 근로실태 부문('24.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87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8천원(3.4%)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5.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3.4%) 감소
- ※ '4년 8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22일 → 21일)

2. 노사 동향

◆ 양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11. 9)를 앞두고 투쟁 분위기 조성에 주력

- 한국노총은 10. 23「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 개최 장소 및 참여 목표 인원(여의도, 5만명)과 주요 요구사항 확정
 - 한국노총은 ▲반(反)노동 정책 심판,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전노대에서 주장한다는 계획
 - 한편, 일부 산별조직들은 ‘반노동정책 심판’에 더해 ‘정권퇴진’을 주요 요구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론
 - 한국노총 집행부는 10. 1부터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현장 순회를 진행하며 전노대 조직화 시도에 주력
- 민주노총은 11. 9「전노대 및 정권 퇴진 총궐기(11. 9, 세종대로)」개최에 앞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권퇴진 투표 등을 진행하며 투쟁 분위기 고조 시도
 - 민주노총은 전노대에서 ▲정권 퇴진, ▲노조법 제2·조 개정,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할 계획
 - 한편, 민주노총은 전노대 이후 11. 27~29 예정인 ‘정책대회’ 조직화에 주력할 계획 · 민주노총은 동 정책대회에서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강화, ▲재정 안정 등 조직운영 혁신,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 등의 주제를 논의할 계획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의결된 가운데 양 노총은 정년연장 등 주요 입법 요구사항 이슈화에 주력

-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10. 22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 *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 12 발족해 6. 26부터 4개월여간 심의 진행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 부여
 - * 공무원노조법 제5조 :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
 - ※ (민간) 조합원 200~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공무원) 조합원 299명 이하 :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15,000명 이상 : 최대 28,000시간 이내
- 금번 의결로 일부 공무원 노조들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증가
-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10. 20 소속 공무원의 정년 65세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년 연장 이슈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등을 주장하며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정년 65세 연장 요구
 - ※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한 국민 청원 진행
- 반면,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높은 연공성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피력
 - 손정식 경총 회장은 10. 2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법정 정년 연장 보다는 새로운 계약을 통한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

- 대통령은 10. 29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 대통령은 ① 노동법 제도의 유연화, ②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당부
- 한편,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1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획감독 예고
 - ※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근로감독 결과 109개 사업장(공공 48개, 민간 61개)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109개 사업장 중 107개 사업장이 시정 완료
 - 금번 기획감독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등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 금번 근로시간면제위반과 관련해 추후 고용부 시정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비협조와 반발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

◆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에 주력

-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출범(10.16)시키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 속도를 높여간다는 계획
 - 전문위원회는 ▲불공정 격차해소,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및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 할 예정
- 국회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개설 모색
 - 국회의장실은 10. 29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관련 노사5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 ※ 주요 참석인 : 우원식 국회의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총 6인)
 - 한편, 동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관련 세미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입장 표명
 - 경총은 노사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노사간 의견 조율 실패,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
 - 한국노총은 ① 노사정 실무협의체 구성, ② (가칭)사회적대화법 등 추진 근거가 선행되어야하며, 경사노위와 국회 내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구분해야한다는 입장
 -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조직 내 갈등을 우려해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 비판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 ◦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